순록의 태풍

허정윤 지음, 글로연, 2026



주제	작품을 깊이 있게 읽고 질문하며, 토론과 표현 활동으로 공동체의 가치 다짐하기
권장 차시	10 시간
대상 학년	5~6 학년
관련 주제어	자아정체성, 생태감수성, 자유, 연대, 공동체, 자연, 환경, 협력, 소속, 이름, 존재
교육과정 연계 관련 성취기준	국어 [6 국 05-04] 인상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6 국 05-06]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도덕 [6 도 04-01] 지구의 환경 위기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 자신의 일상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미술 [6 미 02-05] 미술과 타 교과의 내용과 방법을 융합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다. [6 미 03-02] 미술 작품의 내용(소재, 주제 등)과 형식(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등)을 분석하여 작품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작성	전안초등학교 박정윤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이름과 자유, 그 사이에 선 두 순록의 동행

인간의 개발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고 홀로 떠돌던 야생의 순록은 목장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순록 '버드'를 만납니다. 목장 안의 순록들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끼니 걱정도 없습니다. 이름도, 머물 곳도 없는 순록은 버드에게 자신도 "이름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갖는 순간 더 이상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버드는 이름 지어 주기를 망설입니다.

이후 둘은 숲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삶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이 깊어질수록 순록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고, 버드는 그런 순록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드는 거대한 순록 무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낸 '순록의 태풍'을 마주하고, 그 광경은 버드 안에 봉인되었던 야생의 감각을 깨웁니다. 마침내 버드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기로 결정하고, 순록과 함께 잃어버린 길을 다시 잇는 귀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름'의 의미를 통해 소속과 자유, 보호와 존재의 본질을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림책 글 작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온 허정윤 작가가 이번 『순록의 태풍』에서는 글과 그림을 모두 맡아 작업했습니다. 종이를 자르고 켜켜이 쌓아 올려 완성한 이미지 조형에 빛 연출을 더해 이규철 사진 작가의 촬영으로 책에 담겨졌습니다. 이러한 레이어링 페이퍼 아트의 느낌을 책의 물성으로 구현하기 위해 책 표지와 내지 첫 장을 레이저 커팅으로 제작해, 겹겹이 쌓여 연출되는 이미지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학습 목표

- 인상적인 장면과 문장을 찾고 떠오른 질문을 나누며 작품을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다.
- 작품을 읽고 떠오른 생각과 가치를 주제로 토론하며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성찰할 수 있다.
- '순록의 태풍'의 의미를 이해하고, 협력 놀이에 참여하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 작품의 주제와 표현 기법을 이해하고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입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 수업 준비

『순록의 태풍』은 인간의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야생 순록과 목장에서 살아가는 순록 버드의 만남을 통해 자유와 안전, 이름과 존재, 개인과 공동체의 의미, 생태 전환의 가치를 질문하는 그림책이다. 작품 속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사회적 소속과 규범을, 순록의 태풍은 약한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의 힘을 상징한다.

이 수업은 5~6 학년을 대상으로 작품을 깊이 있게 읽고 질문하며, 토론과 예술적 표현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10 차시로 구성된다. 읽는 중 활동으로 그림책을 깊이 있게 읽으며 인상적인 장면과 문장을 찾고, 인물 비교 및 질문 만들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이어지는 읽은 후 활동으로, 첫째, 삶과 연결하여 비경쟁 토론하기를 진행한다. 안전한 삶과 자유로운 삶, 인간의 편리함과 환경의 공존을 주제로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며 공동체의 가치를 성찰한다. 둘째, '순록의 태풍' 협동 놀이에 참여하며 연대의 의미를 몸소 느끼고, 셋째, 폐종이상자를 활용한 입체 작품 만들기를 통해 주제를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선택 활동으로 인물을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핫시팅과 공동체를 위한 실천 다짐을 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활동을 제안한다.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책 속 이야기를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 학습 과정

읽기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관심 가지기** 순록의 태풍 영상 보기 표지 살펴보기 질문하기 내용 예상하기	2 차시
읽는 중	**그림책 읽어주기** **그림책 깊이 읽기** 내용 파악하며 깊이 있게 읽기 인물의 삶 비교하기 내 마음을 두드린 문장 소개하기 질문과 소감 나누기	
읽은 후	**삶과 연결하여 비경쟁 토론하기**	2 차시
	우리 반 가치 찾기	2 차시
	독후 작품 만들기	2 차시
	[선택 활동] 인물 초대하기 공존 실천 다짐하기	2 차시

읽기 전

1. 관심 갖기

■ 순록의 태풍 영상 보기

- 순록 떼의 영상을 봅시다.
- 순록들은 왜 원을 그리며 돌고 있을까요?

예) 천적을 막기 위해서요.
새끼들을 보호하려고요.
서로 힘을 합쳐 살아남으려는 것 같아요.

Tip. 실제 순록 떼가 만들어 내는 '순록의 태풍' 영상을 먼저 보여 주어 호기심을 높인다.
태풍처럼 빙빙 도는 순록 떼 (MBC 2021.04)(0:38)

■ 표지 살펴보기

- 표지를 살펴봅시다.
- 무엇이 보이나요?

  예) 숲속에 순록 한 마리가 있어요.
- 표지를 만져보고 그다음 장을 넘겨 봅시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예) 표지에 구멍이 뚫려 있고, 구멍 사이로 다음 장이 보여서 입체감이 느껴져요.
  표지를 넘기니 연두색 색지를 숲 모양으로 섬세하게 오려둬서 꼭 나무 사이에 순록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Tip. 학생들이 그림책을 만지며 그림책의 물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레이어링 페이퍼 아트와 타공으로 만든 표지의 특징을 충분히 감상하게 한다.

■ 질문하기

- 표지를 살펴보며 궁금한 것을 질문해 봅시다.

  예) 순록의 태풍은 순록 떼가 함께 만드는데 제목이랑 다르게 왜 순록 한 마리만 표지에 있을까?
  그림책 표지와 낱장에 구멍을 뚫어서 표현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제작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Tip. 간단한 질문놀이로 학생들이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게 돕는다.
'까바놀이'는 짝이 그림을 보고 '~입니다.'로 끝나는 설명하는 문장을 말하면, 다른 짝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 끝만 질문형 '~입니까?'로 바꾸어 말하는 놀이로 관찰력과 표현력, 경청하는 태도를 기르기에 좋다.
학생 A: 순록 한 마리가 숲속에 있습니다.
학생 B: 순록 한 마리가 숲속에 있습니까?
학생 B: 책 표지에 검은 테두리가 있습니다.
학생 A: 책 표지에 검은 테두리가 있습니까?
학생 A: 키 큰 나무가 여러 그루 보입니다.
'까만놀이'는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고 짝과 함께 질문을 만드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질문 생성 놀이이다.

■ 내용 예상하기

- 그림책 속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어떤 내용일지 예상해 봅시다.

  예) 떠돌이 순록이 순록 무리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순록의 태풍을 찾아 공동체를 만드는 이야기 같아요.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자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목으로 내용을 예상해 보면 순록의 태풍처럼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Tip. 읽기 전 활동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내용을 상상할 수 있게 허용적인 분위기를 유도한다.

읽는 중

1. 그림책 읽어주기

■ 교사가 그림책 읽어주기

- 선생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장면에 집중하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Tip. 그림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 교사가 먼저 분위기를 살려 그림책을 읽어주어 몰입감을 높인다.
학급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짝과 함께 역할을 정해 낭독해도 좋다. 학생들이 인물의 내면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참여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2. 그림책 깊이 읽기

■ 내용 파악하며 깊이 있게 읽기

- '인간의 길이 열리자, 순록의 길이 사라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사람들이 순록의 서식지에 길을 만들어서 순록들이 살 곳이 없어졌다는 뜻 같아요.
  순록이 사는 곳의 환경을 사람이 망쳤다는 의미 같아요.

- 야생의 순록과 버드는 처음에 어떻게 만났나요?

  예) 순록의 뿔이 가시덤불에 걸렸는데, 버드가 도와줬어요.

  Tip. 속표지 그림에도 순록과 버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 순록은 왜 이름을 갖고 싶어 했을까요?

  예) 혼자가 되어서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안정된 삶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 버드는 왜 순록에게 이름 지어주기를 망설였을까요?

  예) 이름을 가지면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 버드의 뿔의 변화를 한 번 살펴봅시다.

  예) 뿔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아요.

- 버드의 뿔이 자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야생성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변화 같아요.

- 둘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예) 순록 떼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순록의 태풍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것 같아요.

Tip.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과 작가의 의도를 영상과 함께 안내하면 그림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인물의 삶 비교하기 【활동지 1】 활용

- 순록과 버드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야생에 사는 순록은 자유롭지만 위험해요. 버드는 안전하지만 목장 안에 갇혀 있어요.

순록	버드
야생에서 생활	목장에서 생활
이름이 없음	이름이 있음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삶	주인이 먹이를 주는 삶
자유로움	주인 몰래 목장을 빠져나와야 함
알래스카를 가봄	알래스카를 상상함
자유로운 삶	안락한 삶, 보호받고 소속된 삶

■ 내 마음을 두드린 문장 소개하기 【활동지 1】 활용

- 작품을 읽으며 인상적인 장면이나 의미있게 읽은 구절을 찾아봅시다.
-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함께 써봅시다.

예)

인상적인 장면이나 의미있게 읽은 구절	그렇게 생각한 이유
"이름이 생기면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어."	저는 야생에서 살아도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 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순록의 깊은 눈동자에 순록의 태풍이 스쳐 지나갔다.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금빛 눈동자야."	순록은 버드와 만나지 않았던 동안 순록의 태풍을 경험하고 온 것 같아요. 버드가 그것을 느낀 것 같아요.
"이제 내 이름을 버릴 때가 되었어."	버드가 목장을 벗어나 자유로운 삶, 야생의 순록 무리와 함께 생활하는 삶을 선택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맨 마지막 장면 버드와 순록이 함께 걷는 모습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장면이 감동적이에요. 서로 의지하며 순록 떼가 있는 곳으로 갈 것 같아요.

■ 질문과 소감 나누기 【활동지 1】 활용

- 작품을 감상하며 떠오른 질문을 나눠 봅시다.

예)

질문 나누기
· 목장의 딸이 순록에게 '버드'라는 이름을 지어 준 이유는 뭘까? 새(bird)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건 아니었을까? · 순록의 떠돌이 생활이 어땠을까? 왜 슬픈 눈동자로 버드에게 "떠돌이 생활은 이제 지쳤어."라고 말했을까? · 목장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채찍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목장에서 사는 순록은 그렇게 길들여지는 걸까? · 자작나무 숲은 얼마나 크고, 어떻게 생겼을까? · 북극 순록이 계절에 따라 눈동자의 색깔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곳에 사는 순록은 어떨까? 사는 곳에 따라 다양한 순록이 있을까? · 순록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뛸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 작품을 감상하며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 그림책 장면을 종이를 오리고 조명을 넣은 것을 촬영해서 만들었다니 신기해요. 페이퍼 레이어링 아트를 더 찾아보고 싶어요.

이 책을 읽으니 순록을 직접 보고 싶고 순록의 태풍을 직접 본다면 소리가 엄청 클 것 같다.

목장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야생으로 나가는 버드의 모습을 보니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 'bird' 라는 이름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읽은 후

1. 삶과 연결하여 비경쟁 토론하기 【활동지 2】 활용

■ 토론 주제 정해 토론하기

- 작품에서 느낀 점과 떠오른 질문을 우리의 생활 문제와 연결하여 토론 주제를 만들어 봅시다.
- 토론 주제를 만들기까지 떠오른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 모둠 또는 우리 반 토론 주제를 정해 봅시다.
-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봅시다.
- 친구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예)

토론 주제	우리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자연의 길을 없애도 될까?
토론 주제를 만든 이유	사람들이 자연을 개발해서 순록의 서식지와 길이 파괴되었다. 우리 주변에도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도로와 건물을 만들고 있다. 편리함을 만드는 동안 동물들이 원래 다니던 길은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연을 이용해도 되는지 고민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정했다.
생각 나누기	-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도 살아가려면 도로와 건물이 필요하니 무조건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물의 길을 완전히 없애는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다. 도로를 만들 때 동물들이 다치지 않게 건너갈 수 있는 생태 통로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개발 구역을 정해서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면 사람의 편리함과 동물의 생존을 모두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 사람의 욕심보다 자연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길을 조금 돌아가거나 건물을 덜 짓는 건 불편할 뿐이지만 동물의 길을 없애는 건 그들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라기보다 자연과 함께 사는 하나의 존재일 뿐인데 우리 편리함 때문에 다른 생명을 쫓아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Tip. 토론 주제와 관련된 자료와 동영상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한다.
끊긴 숲 연결한 '생태 통로' … 야생동물 '북적' (SBS 2024.6.24.)(2:08)

토론 주제	안전한 삶과 자유로운 삶,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
토론 주제를 만든 이유	그림책 속에서 버드는 안락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만 자유는 없었고, 야생의 순록은 숲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우리도 부모님이나 학교의 보호를 받는 안전한 삶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유로운 삶을 꿈꾼다. 과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

생각 나누기	– 나는 우선 안전한 삶을 충분히 누린 뒤에 서서히 자유를 찾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싶다. 무작정 밖으로 나가거나 시도하는게 무모한 도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너무 편안한 것만 계속 추구하면 내 실력이 자라지 못할 것 같다. 비록 실수하거나 조금 헤매더라도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을 해보고 싶다. 스스로 선택한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이 자유로운 삶인 것 같다.

■ 토론 소감 나누기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Tip. 비경쟁 독서토론은 정답을 찾거나 승패를 가르는 토론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삶을 성찰하고 서로의 생각을 연결하는 소통의 시간이다.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이 쏟아내는 다양한 의견은 그 자체로 배움의 재료가 된다. 비경쟁 독서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타인의 생각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공동체 안에서 다름을 수용하는 민주적 대화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2. 우리 반 가치 찾기 【활동지 3】 활용

■ 순록의 태풍 이해하기

- 순록의 태풍은 누구를 보호하나요?

  예) 새끼 순록, 약한 순록 등

- 순록의 태풍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예) 협동, 배려, 책임감 등

가치(덕목)	그렇게 생각한 이유
협동	순록들이 새끼 순록과 약한 순록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배려	혼자 도망쳐도 되는데 다른 순록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 태풍을 함께 만드는 모습에서 배려하는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책임감	새끼 순록과 약한 순록을 지키는 것은 건강한 어른 순록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순록 무리를 잘 지켜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태풍을 함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Tip. 가치 단어, 도덕적 가치 목록을 제시하여 자신이 생각한 가치(덕목)를 구체화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이 선택한 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허용하고 격려한다. 어떤 가치 단어를 선택했느냐보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 더 큰 무게를 둔다.

감사 겸손 공평 관용 마음 나누기 믿음 배려 보람 사랑 성실
신중 약속 양심 예의 용기 유머 이해심 인내 자신감 정직 존중
책임 친절 행복 경청 공감 끈기 바른 마음 보살핌 부지런
생명 존중 솔선 아름다움 양보 우정 자연 사랑 자유 절약
절제 정돈 정성 즐거움 질서 착한 마음 평화 함께하기 협동 희망

출처: 채인선, 『아름다운 가치 사전 1, 2』

감사	배려	유연성	창의성
결의	봉사	이상 품기	책임감
겸손	사랑	이해	청결
관용	사려	인내	초연
근면	상냥함	인정	충직
기뻐함	소신	자율	친절
기지	신뢰	절도	탁월함
끈기	신용	정돈	평온함
너그러움	열정	정의로움	한결같음
도움	예의	정직	헌신
명예	용기	존중	협동
목적의식	용서	중용	화합
믿음직함	우의	진실함	확신

출처: 한국버츄프로젝트(virtues.or.kr)

■ 우리 반의 가치(덕목) 찾기

- 우리는 왜 함께 살아야 할까요?

  예) 혼자 살면 외롭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 바람직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싶나요?

  예) 힘들고 안좋은 일이 생겼을 때 위로하고 도와줘요.

- 우리 반이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마음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예) 배려, 협력, 존중, 경청, 용기 등

  친구에게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모르는 척하지 말고 도와줘야 합니다.

■ 공동체 놀이하기

- 협력의 가치를 생각하며 공동체 놀이를 함께 해 봅시다.
- 순록들이 태풍을 만들 때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상상하며, '손잡고 훌라후프 전달놀이'를 해 봅시다.

  예) 손잡고 훌라후프 전달 놀이

손잡고 훌라후프 전달 놀이
① 준비 및 대형 만들기 · 모든 학생이 원형으로 둘러서서 옆 사람과 손을 잡는다. · 어느 한 지점에 훌라후프를 미리 한 명의 팔에 걸어둔다. ② 놀이 규칙 · 손을 잡은 상태에서 팔에 걸린 훌라후프를 옆 사람에게 전달한다. ★핵심 규칙: 절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몸을 비틀거나 훌라후프 안으로 몸을 통과시키며 자연스럽게 다음 사람에게 훌라후프를 옮겨야 한다. ③ 활동 진행 · 훌라후프가 첫 번째 사람에서 마지막 사람까지 전달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 훌라후프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엉키기도 하지만, 이때 친구를 배려하며 도와주는 과정이 이 놀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한다.

- 공동체 놀이에 참여한 소감을 이야기해 봅시다.

Tip. 공동체 놀이는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원 대형의 놀이를 선택하되, 놀이 그 자체보다 놀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주목하도록 이끈다. 손잡고 훌라후프 전달 놀이 외에도 손 엇갈려 잡고 풀기, 손님 모셔오기, 과일 바구니 등이 있으며 놀이 방법은 유튜브 #이종대왕 채널 등에서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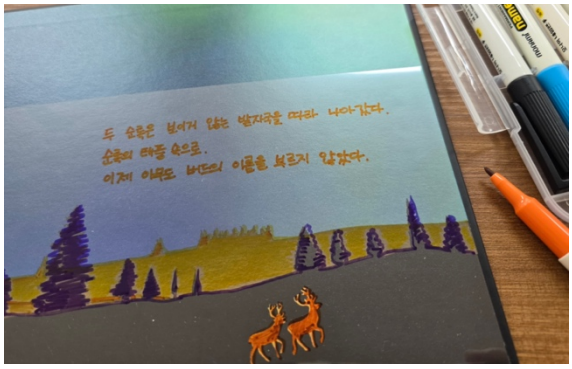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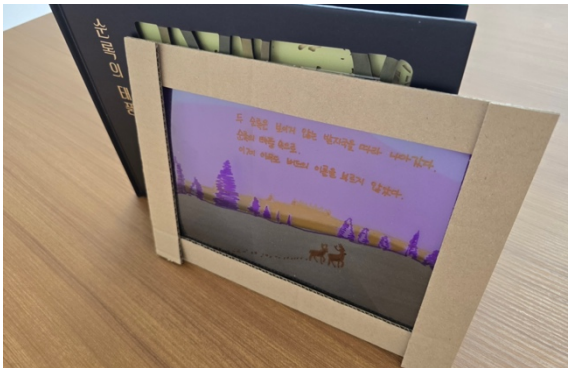
손 엇갈려 잡고 풀기
 
출처: Gemini AI 를 활용하여 생성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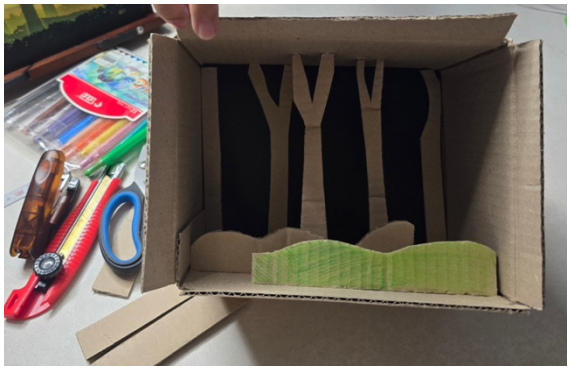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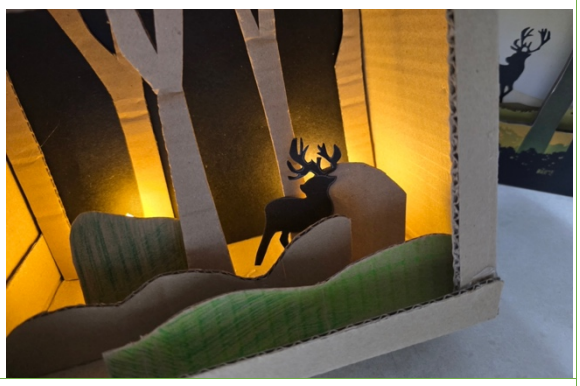
3. 독후 작품 만들기

■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작품 만들기**

- 폐종이상자를 활용하여 작품의 의미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예)

1. 인상적인 장면과 글귀를 넣어 그림책 명장면 액자 만들기	
	
① 준비물: OHP 필름, 네임펜, 색종이(색지), 스카치테이프, 가위, 종이상자로 만든 막대	② 마음에 와닿은 장면 위에 OHP 필름 올려두고 네임펜으로 따라 그린다.
	
③ OHP 필름에 가장 인상적인 글귀를 필사한다.	④ 안쓰는 종이상자를 막대모양으로 잘라 모서리를 이어 붙여 사각틀을 만든다.
	
⑤ 사각틀에 OHP 필름과 어울리는 색상의 종이를 붙인다.	⑥ 작품을 완성한다. 사각틀에 의미있는 문장을 추가해서 적을 수도 있다.

2. LED 꼬마 양초를 활용하여 입체 작품 만들기 (페이퍼 시어터, Paper Theater)	
	
① 폐종이상자의 여닫는 부분을 1.5cm 남기고 자른다. 안쪽 벽에 검은 색상지를 붙여 배경을 만든다.	② 상자 안에 오려둔 덤불과 자작나무를 글루건으로 붙인다.
	
③ 덤불과 자작나무를 붙일 때 위치에 변화를 주어 공간감이 살아나게 한다.	④ LED 양초를 덤불 뒤에 가려 보이지 않게 놓는다.
	
⑤ 상자 네 귀퉁이를 글루건으로 붙여 무대처럼 만든다.	⑥ 검은색 색지로 만든 순록을 적당한 곳에 붙여 완성한다.
	

Tip. 폐종이상자를 활용해 입체 작품을 만든다. 이때 책의 핵심 기법인 레이어링 페이퍼 아트를 활용하여 빛으로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건이 된다면 투명한 OHP 필름, 투명한 손코팅 필름, 얇은 한지를 겹쳐 모둠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 재료들은 빛을 은은하게 투과시키는 성질이 있어, 층층이 쌓일수록 입체감과 명암이 만들어진다. 여러 겹의 재료 사이로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지는 조화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 활동 1] 인물 초대하기 【활동지 4】 활용

■ 등장인물에게 궁금한 것 쓰기

- 순록과 버드에게 궁금한 것을 써봅시다.

■ 인물 초대해서 인터뷰하기

- 한 학생이 순록 또는 버드가 되어 의자에 앉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 인물에게 질문하다.

예)

	인물에게 질문하기	예상 답변
버드	버드, 농장 생활은 어땠어?	변화없는 생활이 조금 지루했어. 나는 늘 농장 밖 세상이 궁금했어.
	너는 너의 이름이 마음에 드니?	응.'버드'라는 이름은 새가 떠올라서 자유로움이 느껴져서 나는 마음에 들어. 근데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하지…. 아니 마음에 들지 않아. 왜냐하면 나를 농장에 가둬두기 위해, 필요해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야.
	버드, 너는 왜 야생의 순록을 보면서도 목장을 떠나길 망설였니?	이곳을 떠나면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두려웠어.
순록	순록아, 너는 순록의 태풍을 직접 보고 어떤 생각을 했니?	나도 순록의 무리에 속해서 태풍을 만들고 싶었어.
	순록아, 만약에 너에게 스스로 이름을 지어 준다면 너는 너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 줄거야?	나는 '바람의 발자국'이라고 지을거야. 내가 어디에 있든 나만의 길을 만들고, 순록의 태풍으로 내 친구들을 지키겠다는 뜻이야.

■ 인물에게 편지쓰기

-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넣어 편지를 써봅시다.

Tip. 이 활동은 국어과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다. 핫시팅을 할 때, 한 학생만 그 인물이 되어 답하기보다 초대 의자에 두세 명을 앉힌다면 인물의 다양한 답변을 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핫시팅에 이어 인물에게 편지쓰기나 역할극을 이어 한다면 학생들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다.

[선택 활동 2] 공존 실천 다짐하기 【활동지 5】 활용

■ 공존의 가치를 이해하며 실천 다짐하기

- 인간의 개발로 인해 사라진 우리 주변의 자연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도로 건설로 사라진 논과 밭, 숲, 학교 근처 하천 등

- 자연, 동물과 공존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동물이 다니는 길을 그대로 두면서 도로 만들기, 생태 통로 만들기 등

-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주변 자연과 동물 관찰하기, 동네 플로깅, 동네 생태 지도를 만들며 작은 생물에 관심 갖기 등

Tip. 『순록의 태풍』 속 환경 파괴 문제를 우리 주변의 생태적 문제로 확장한다. 읽은 후 활동 1 '삶과 연결하여 비경쟁 토론하기'의 생태 통로와 관련된 토론에 이어 제안하는 글쓰기로 연결해도 좋다. 학급 상황에 따라 직접 플로깅을 나가고, 동네 생태 지도를 만들 수도 있다.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가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 다짐을 한다.

【참고자료】

순록떼가 빙빙 돌며 태풍의 눈을 만든 이유 SBS ANIMAL (5:49)	태풍처럼 빙빙 도는 순록 떼 MBC (0:38)	『순록의 태풍』 메이킹 영상, 작가 나레이션 글로연출판사 (2:02)	영구동토층과 순록 떼의 죽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활동지 1】



읽는 중 활동

그림책 깊이있게 읽기

이름

★ 두 인물의 삶을 비교해 봅시다. 순록과 버드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요?

순록	버드
(예) *야생에서 산다.*	*(예)* *목장에서 산다.*

★ 작품을 읽으며 인상적인 장면이나 의미있게 읽은 구절을 찾아봅시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함께 써 봅시다.

인상적인 장면이나 의미있게 읽은 구절	그렇게 생각한 이유

★ 작품을 감상하며 떠오른 질문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활동지 2】



읽은 후 활동

삶과 연결하여 비경쟁 토론하기

이름

★ 작품에서 느낀 점과 떠오른 질문을 우리의 생활 문제와 연결하여 토론 주제를 만들어 봅시다.

내가 생각한 토론 주제	
토론 주제를 만든 이유	

★ 모둠 또는 우리 반 토론 주제를 정해 봅시다.

함께 정한 토론 주제	

★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고 친구들과 토론하며 친구들의 의견도 메모해 봅시다.

나의 생각	
친구들의 의견	

★ 작품을 감상하며 떠오른 질문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활동지 3】



읽은 후 활동

우리 반 가치 찾기

이름

★ 순록의 태풍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덕목)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 가치(덕목) :

■ 이유 :

감사	배려	유연성	창의성
결의	봉사	이상 품기	책임감
겸손	사랑	이해	청결
관용	사려	인내	초연
근면	상냥함	인정	충직
기뻐함	소신	자율	친절
기지	신뢰	절도	탁월함
끈기	신용	정돈	평온함
너그러움	열정	정의로움	한결같음
도움	예의	정직	헌신
명예	용기	존중	협동
목적의식	용서	중용	화합
믿음직함	우의	진실함	확신

출처:
한국버츄프로젝트(virtues.org)

★ 바람직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요? 내가 바라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요?

★ 우리 반이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마음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활동지 4】



읽은 후 활동

인물 초대하기

이름

★ 등장인물에게 궁금한 것을 써 봅시다.

순록에게 질문	
버드에게 질문	

★ 핫시팅을 하며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써 봅시다.

★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넣어 편지를 써봅시다.

【활동지 5】



읽은 후 활동

공존 실천 다짐하기

이름

제 호

공존 실천 서약서

성명 _____

연대

공존과 생태 전환의 가치를 생각하며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아래의 약속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생태 전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026년 [ ]월 [ ]일

학급 공동체 (인)

출처: Gemini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이미지